

26

내과병동 간호사에게 발생한 만성골수성백혈병

성별	여	나이	41세	직종	간호사	직업관련성	높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	-------	----

1 개요

남○○은 J병원에 1984.3. 입사하여, 1993.8.~2000.8.까지 내과 병동에 7년 1개월 간 근무하면서 항암제를 취급하여왔는데, 2000.8.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받았다.

2 작업환경

남○○이 근무했던 병동의 구조는 간호사실에서 1m 정도의 거리에 환자 처치를 위한 약품준비구역이 있다. 이 구역에서 간호사는 항암제 및 항생제 등을 배합하며, 배합된 용액을 환자에게 정맥주입하기 위해 정맥주입기구 준비를 한다. 간호사들은 탈의 및 휴식을 하기 위해서 혹은 출퇴근 후에 이 구역을 통과해서 간호사실로 출입한다. 의무기록을 통해 조사한 결과, 2병동은 2000.12.~2001.7.까지, 항암제 치료를 받은 입원 건수가 월 평균 9~27건이었다. 입원 기간은 평균 2~3일이었다. 이 건수는 외래를 통해 내원하여 항암제 투약을 받은 환자는 포함되지 않았고, 과거 남○○ 간호사의 근무 당시에는 최근보다 항암환자가 더 많았다고 한다.

3 의학적 소견

남○○은 음주와 흡연, 약물장기복용 경험이 없으며, 가족 중에도 백혈병 경력이 없었고, 기타 암에 이환된 가족도 없었다. 의무기록상 당뇨, 고혈압, 결핵, 간염에 이

환된 적이 없었다. 2000.7. 말경 자가 촉진상 복부 종괴가 있어 정밀검사결과, 만성골수성백혈병에 의한 비장종대로 진단되었다. J병원에 1984년 입사하여, 신경외과, 재활병동에서 1993.7.까지 근무하였고, 1993.8.부터는 내과병동에서 근무하였다.

4 결 론

남○○의 만성골수성백혈병은

- ① 입사이후 7년 간 간호업무시 항암제 취급하였는데,
- ② 근무하였던 병동에는 항암제 노출 예방을 위한 설비가 미비하였고, 항암제의 준비와 투약과정에서 호흡기 및 피부로 항암제 노출 위험이 있었으며,
- ③ 항암제 취급 간호사에서 소변 중 항암제가 검출되거나, 염색체변화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, 백혈병 발생위험이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고,
- ④ 이 병원에서 취급한 항암제들은 변이원성이 보고되고 있는 약물들이며, 일부는 국제암연구기구에서 사람에서의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항암제가 포함되어 있으며, 이 항암제들은 사람에서 안전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가능한 노출을 피할 것이 권고되고 있으며,
- ⑤ 백혈병과 관련된 약물복용 등의 경력이 없으며, 항암제 취급 업무 외 방사선, 유기용제 등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된 적이 없으므로, 항암제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였다.